

## 濟州의 風葬說에 대한 論議

金 奉 玉\*

### I. 서 론

옛 문헌을 보면 사문헌(私文獻)과 공문헌(公文獻)이 있는데, 과거 향토사를 서술할 때 종종 사문헌을 인용한 예가 많다. 그러므로 간혹 사문헌의 편견이나 혹은 속설 등으로 사실과는 전혀 달리 전해지는 일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주에서의 풍장설에 대한 오류이다.

본 발표는 공문헌에 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 있다.

### II. 풍장설의 문헌

#### 1. 탐라기년

세종 25년 겨울, 안무사로써 목사·지감목사를 겸하게 하였다. 안무사 기건의 성품은 고집세고 엄근(廉謹)하였다. 본주산 복어(전복)는 바다에서 잡는데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러워 하므로 기건이 말하기를 백성의 고통이 이와 같으니 내 차마 먹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마침내 먹지 않았다.

또 본주의 풍속에 주인 없는 시체를 도랑에나 골짜기에 버리는 것이 많았으므로 기건은 본주에 도입하자 주리(州吏)에 명하여 관곽을 갖추어 이를 엄장하게 하였다.

(일설에는 기건이 꿈을 꾸었는데 3백여 인이 앞에 와서 감사히 절하며 말

\* 제주도사 연구가

하기를, 공의 음덕으로 뼈가 비바람에 바래지는 것을 면하였으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공은 응당 금년에 어진 손자를 얻어서 키우게 될 것임이니 다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기전의 세 아들이 모두 자식이 없었는데 과연 이 해에 아들 축이 찬을 낳아서 벼슬은 응교(應敎)를 지냈다.)

癸亥 25(明 英宗 正統 8年)冬 以安撫使 兼牧使知監牧事○安撫使奇度 性執而廉謹 州產鯪魚 採于海 民甚苦之 度曰 民之受病如是 吾忍食諸 竟不食 又州俗無主 僮屍 委諸溝壑者多 度到州 飾州吏 備棺槨 使之歛葬(一說度夢見 三百餘人拜謝于前曰 賴公陰德 得免暴骸 無以報恩 公應於今年 生育賢孫 先是 度之三子 皆無子 果是歲 子軸生子禳 官應敎去)(耽羅紀年 卷之 2-36)

## 2. 연려실기술…기건(奇虔)조

○공은 평생에 전복(鯪)을 먹지 않았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은 즉 답하기를, “일찌기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되어 백성들이 전복 따기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차마 먹지 못한다” 하였다. (용재총화)

○제주(濟州)의 그전 풍속에 그 부모를 장사 지내지 않으며 죽으면 곧 언덕이나 구렁에 버리었다. 공이 부임하기 전에 먼저 고을에 영을 내려 관곽(棺槨)을 갖추고 염습(歛襲)하여 장사지내도록 가르쳤다. 제주 사람이 그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 공으로부터 시작되고, 교화(敎化)가 크게 행하였다. 하루는 공이 꿈을 꾸니, 삼백여 명이 뜰 아래에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기를, “공의 은덕으로 해골이 폭로(暴露)되는 것을 면하였는데, 은혜를 갚을 것이 없으니, 공이 응당 금년에 어진 손자를 보실 것입니다” 하였다. 그 때까지 공의 세 아들이 다 자식이 없었는데, 과연 이 해에 공의 아들 장령(掌令) 축(軸)이 아들 찬(禳)을 낳아서, 뒤에 벼슬이 응교(應敎)에 이르렀다. (월사집)

○公平生不食鯪 人間其故 曰 曾爲濟州牧 見民苦於採捕 故不忍也(慵齋叢話)

○濟州舊俗 不葬其親 死輒委之丘壑 公未任 先勅州吏 備棺槨 教以歛葬 州之葬其親 自公始 敎化大行 一日夢見 三百餘人拜於庭 下叩謝曰 賴公之惠 得免暴骸 無以報恩 公應於今年 生育賢孫 先是 公只三子皆無嗣 果是歲 公子掌令軸 生子禳 官旨應敎

《月沙集》(燃藜室記述 卷之四 端宗朝(殉難諸臣) 755)

## II. 나환자설의 문헌

### 1. 세종 27년(1445) 11월 정축(6일)

제주 안무사가 아뢰기를 “본주 및 정의·대정에 나병(癩病)이 유행합니다. 만약 병에 걸린 자가 있으면 그 전염(傳染)되는 것을 우려하여 해변(海邊)의 사람이 없는 곳에 두므로, 그 고통(苦痛)을 견디지 못하고 암애(巖崖)에서 떨어져 그 목숨을 끊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신이 승인(僧人)으로 하여금 뼈를 거두어 묻게 하고, 삼읍(三邑)에 각각 치병소(治病所)를 설치하여 병인(病人)들을 모아서 의복·양식·약물(藥物)을 공급했습니다. 또 목욕(沐浴)할 그릇을 설치하여 의생(醫生)과 승(僧)으로 하여금 치료(治療)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나병(癩病) 환자 69인 중에 45인은 차도가 있고 10인은 아직 낫지 않았으며 14인은 죽었습니다. 다만 삼읍의 승(僧)은 본래 군역(軍役)이 있는데 청진대 삼읍에 승(僧) 가운데 각각 1인을 그 역(役)에서 면제하여 항상 의생(醫生)과 같이 구료(救療)에만 전념하게 하십시오. 의생(醫生)도 역시 녹용(錄用)을 허락하여 권장하십시오” 하니, 병조에 내렸다.

世宗 27年 11月 丁丑(五卷 644 上)

濟州安撫使啓 州及旌義大靜 癩疫興行 若有得疾者 惡其傳染 置于海邊 無人之地 不勝其苦 故墮巖崖 以隕其命 誠可憐憫 臣令僧人 拾骨埋之 三邑各置 治病之所 聚病人 給衣糧藥物 又設沐浴之具 使醫生僧人 監掌治療 見在癩病 六十九人內 四十五人 差愈 十人時未愈 十四人物故 但三邑僧 本有軍役 請三邑僧 各一人 除其役 常與醫生 專事 救療 醫生亦許錄用以勸 下兵曹

### 2. 문종 원년(1451) 4월 경오(2일)

기전(奇虔)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삼았다. 기전(奇虔)은 이사(吏事)를 조금 익혀 제사(諸史)를 즐겨 보았다. 일찌기 제주목사로 있을 땐 전복(全鰓)을 먹지 않았다. 또 제주가 해중(海中)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나병(癩病)이 많았는데, 비록 부모처자라 할지라도 또한 서로 전염될 것을 염려

하여 사람이 없는 땅으로 옮겨 두고 스스로 죽기를 기다렸다. 기전(奇踐)이 관내(官內)를 순행(巡行)하다가 해변(海邊)에 이르렀을 때 암벽(巖壁) 밑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서 가 보니 과연 나환자(癩患者)들이었다. 그리하여 그 까닭을 물어서 알고는, 곧 구질막(救疾幕)을 꾸미고 나환자(癩患者) 백여 명을 모아 수용하되 남녀를 따로 거처하게 하였다. 고삼원(苦參元)을 복용시키고 해수(海水)로써 목욕(沐浴)을 하게 하니 태반이 치료되었다. 그가 체임하여 돌아올 때는 병이 치료된 자들이 서로 울면서 보내었다.

文宗 元年 4月 庚午(6卷 371 上)

奇踐開城府留守 稍習吏事 喜觀諸史 嘗牧濟州 不食鯪魚 且州在海中 人多癩疾 雖父母妻子 亦恐相染 徙置無人之地 以待自斃 虔行部至海濱 聞巖下有呻吟聲 視之果癩者 因問知其故 即構救疾幕 聚置癩者百餘人 男女異處 命服苦參元 沐以海水 大半差愈 及其遞遷 疾愈者相與泣送

### 3. 신정식(申汀植) 대한나학회지 제18권 1호(별책 1985)

奇踐은 濟州安撫使로 滿 2年 있었다. 實錄에 보면 世宗 卷 一百十 27年 乙丑 11月 丁丑의 狀啓와 文宗元年 辛未 4月 庚午에 그의 業績을 다시 紹介하고 있으나 그 內容은 大同小異하다.

當時 濟州 大靜 旌義 세 邑에 癩患者가 많았는데, 이들 島民들의 癩病에 對한 認識과 對應姿勢를 보면 비록 父母妻子間이라도 이 病이 傳染되는 것이 무서워서 得病者는 바닷가 無人之地에 放置하여 스스로 죽기를 기다리거나 苦痛에 겨워 墮巖崖以隕其命하였다고 紹介하고 있다.

即 惡其傳染 또는 亦恐相染이라는 文字로 癩病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긴다는 傳染病을 믿었으며 患者를 내다 버린 習俗은 東西古今에 그 軌를 같이 하여서 公이 救癩事業을 始作한 動機가 聞巖下有呻吟聲視之果癩者하여 誠可憐憫 聚病人했다는 史實이, 1904年 美 宣教師인 Dr. Forsythe 이 榮山江 堤防에서 처음으로 癩患者를 發見 仁術로서 救癩한 事實과 恰似하여 興味롭다.

이것을 뒤집으면 500年 以上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는 부끄러운 現實을 目睹하게 된다.

公이 施行했던 救療內容을 보자.

三個處에 治病之所(救疾幕)을 設置하여 聚病人하고 男女異處에 收容, 衣糧과 藥物(苦參元)을 支給, 服用시켰으며 沐浴用具를 設備하여 沐以海水시켜 69名 乃至 100餘名の 患者 大部分이 差癒되었다고 했다. 勿論 嚴格히 말하여 近來 化學療法이 導入될 때까지는 東西를 가리지 않고 治療가 無望한 難治, 不治病이었던 것은 分明하지만 그 症狀의 輕快를 가져왔고 또 隔離收容의 效果도 건우었을 것은 確實하다.

오늘날 施行하고 있는 癩病管理와 同一한 內容으로 이미 550年前에 우리의 先人이 이것을 行했다는 事實도 놀랍지만 特記할 만한 것은 沐浴海水하여 Saline soaking의 效驗을 일찌기 얻었다는 것과 醫生の 士氣를 올리기 위하여 벼슬을 주어 錄用시켰고 또 이들을 補助하여 患者 看病을 맡은 僧에게 課해졌던 軍役을 免除케 하여 專事救療케 하여 用人의 絕妙를 얻은 史實이 오늘날의 公衆保健醫 制度和 전주어 先人들의 卓拔한 史事에 駕嘆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行蹟이 公의 遞任으로 그 痕跡이 惻然하게 끊겼으며 前示한 바 光海朝의 建白이 있었을 때도 이에 對한 對處한 記錄이 全無하여 公의 燦爛한 業績은 홀로 높이 光輝를 發한다. 하나 名君, 賢哲의 그것에 反하여 暗愚한 累百年을 徒過함으로써 由來한 오늘날의 現傷을 짊어 볼 때 撫然함을 느끼게 한다.

特히 經濟成長으로 因한 衛生的 環境, 衣·食·住 生活의 向上이 큰 役割을 하였다. 하지만 究極의으로는 公이 施行한 置治病之所 聚病人하던 隔離收容만으로 癩病을 退治한 西歐 各國의 經過를 우리들이 過去와 比較해 보아 痛憤과 自責함이 크다 할진대 同學 同進들의 倍前의 召命意識과 憤發이 要請된다.

#### 4. 참고사항

※ 탐라기년(耽羅紀年) 김석익(金錫翼)저. 1918. 영주서관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47권 24책 사본. 이조 시대의 역대 사실의 전말을 여러 책에서 뽑아 엮은 역사 서적. 정조 때 사람 이궁익(李肯翊) 지음.

원집(元集) 20권은 태조에서 현종까지의 역대의 사실을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에 따라 각 대(代)마다 요목(要目)을 쓰고, 다음에 발취편(拔萃編)을 붙였으며, 속집(續集) 8권은 숙종 1대의 기사, 별집(別集) 19권은 국조(國朝)·사건(祀典)·사대(事大)·관직(官職)·정교(政教)·문예·천문·지리·변위(邊圉)·역대 등으로, 이 책은 400종의 야사(野史)·수록(隨錄)·일기·문집(文集) 등 사료(史料)를 모아 원문 그대로 썼다. 일언 일구도 가필하지 않은 점에서 공정성이 인정된다. 일제시대에 조선고서 간행본과 광문회본(光文會本)이 나왔다. 1968년 1월에 민족문화추진회(民族文化推進會)에서 완역되어 출간되었다. (李弘植 國史大事典)

※ 이금익(李肯翊) 1736(영조 12)~1806(순조 6) 이조 영·정조 때의 저술가. 자는 장경(長卿), 호는 연려실(燃藜室), 본관은 전주(全州), 원교(圓峯) 광사(匡師)의 아들. 아버지 광사에게 학문을 배워 문필이 당대에 으뜸이었고 실학을 제창, 고증학파로서 활약한 그는 조선 근세사연구에 선구자이다. 소론(少論)의 논의를 가장 강경히 주장하여 당쟁으로 인해 온 집안이 화를 입었고, 연좌되어 벼슬하지 못했으며 귀양살이를 여러번 겪게 되어〈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외의 많은 저작이 모두 유실되었다. 저서 연려실기술. (李弘植 國史大事典)

※ 월사집(月沙集) 75권 22책 인본. 이조 인조때 사람 월사 이정구(李廷龜)의 시문집. 제자 최유해(崔有海)가 편집 간행. 1688년(숙종 14)에 손자 이익상(李翊相)과 조카 이희조(李喜朝) 등이 중간. 본집 63권, 부록 5권, 별집 7권, 시·강어(講語)·변무록(辨誣錄)·주(奏)·정문(呈文)·자(咨)·계(啓)·계첩(揭帖)·계사(啓事)·강의(講義)·계사(啓事)·의(議)·소차(疏箚)·잡저(雜著)·간첩(簡帖)·서독(書牘)·기(記)·서(序)·발(跋)·상량문·비명(碑銘)·묘갈(墓碣)·묘지(墓誌)·묘표(墓表)·비음기(碑陰記)·행장(行狀)·시장(諡狀)·제문(祭文)·애사(哀辭)·표(表)·전(箋)·책문(冊文)·교명문(敎命文)·교서(敎書)·약장(藥章)·교요(敎謠)·서계(書契)·노포(露布)·조천기사(朝天紀事)·부록 등이 실려 있다. (李弘植 國史大事典)

※ 이정구(李廷龜) 1564(명종 19)~1635(인조 13). 이조 인조 때의 대신.

자는 성징(聖徵), 호는 월사(月沙), 시호는 문충(文忠), 본관은 연안(延安), 연성(延城) 부원군 석형(石亨)의 5세손. 진사에 합격하고 1590년(선조 23) 문과에 급제, 한림에 들어가 1592년 임진왜란을 만나 왕의 행재소에 나아가 설서(說書)가 되어 명나라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에게서 경전(經傳)을 배워 병조참지(兵曹參知)가 되어 명나라의 구원병을 잘 인도했다. 당시 명나라의 정응태(丁應泰)가 조선에서 왜병을 끌어들이어 중국을 침범하려 한다고 무고한 사건에 대하여 주문(奏文)을 써 올렸으며, 공조참판에 올라 정사(正使) 이항복(李恒福)의 부사로 명나라에 건너가 변론에 힘쓰고 응태를 파직시켰다. 호조참판을 거쳐, 다시 세자책봉추정사(世子册封奏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병조판서를 거쳐 예조판서에 이르러 평양(平壤)의 기자사(箕子嗣)에 숭인(崇仁)이라는 전호(殿號)를 내릴 것과 전감(殿監)을 두어 선우씨(鮮于氏)를 그 입에 맡기고 병적(兵籍)에 두지 말것을 주청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흉당들의 시기를 받아 김제남(金悌男)의 피무(被誣) 사건에도 포함되었으며,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 명나라 모문용(毛文龍)의 군대가 조선에 성의가 없으며 금나라의 군사와 싸울 성의도 없다고 인조에게 진언하였다. 이괄(李适)의 난에 왕을 공주(公州)에 모시고, 정묘호란(丁卯胡亂)에 왕을 모시고 강도(江都)에 피난하여 화의를 반대하였으며, 우의정에 이르러 죽었다. 저서 월사집(月沙集) 25권·서연강의(書筵講議) 1권·대학강의(大學講義) 1권. 문헌 宣祖·仁祖實錄, 光海君日記, 誌狀輯略, 海東名臣錄. (李弘植 國史大事典)